

일본에서 뿐만 아니라, 다른나라에서도 공공 장소에서의 흡연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비흡연자이긴 하지만, 흡연자들의 담배 피울 권리에 대해 이해(공감)하고 있습니다.

담배는 어디까지나 기호품이고, 흡연자들은 담배를 피울 권리가 있으니까요.

담배 광고도 그렇습니다. 담배는 기호품이니 흡연자들은 담배 광고를 보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담배 광고의 방송 금지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공공 장소에서의 흡연문제는 좀 다르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공 장소의 흡연 때문에 비흡연자들이 직접적인 피해를 받기 때문입니다. 장기간의 간접 흡연은 담배를 피우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연구결과도 보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만 보더라도, 간접 흡연이 얼마나 위험한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흡연자들에게 담배를 피울 권리가 있는 것처럼, 비흡연자들도 담배 연기를 맡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레스토랑이나 버스 같은 공공장소에 담배를 피울수 없게 법을 만드는데는 반대합니다. 이 문제는 법으로 만들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해줄 것인가, 그렇지 않을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공공장소에 경고문을 만든다든가, 방송에서 캠페인을 벌인다든가 하는 방법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무리하게 공공장소에서의 금연 법규를 만든다면, 더 큰 반발만 초래하게 될테니까요.

지금 우리사회는 점점 더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는 법규같은 것 보다는 서로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방법이 필요한것 같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방법이 법보다 더 효과적이 아닐까 생각합니다.